

같은 시간인 7시 24분 官轄 消防署의 望樓勤務者는 그 빌딩의 發火報告를 指令室에 傳했다. 消防員이 火災라고 생각, 報告했을 때는 아직 屋塔 (外氣取入口)에서 火焰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검은 연기만이 천천히 上昇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11分後인 7시 35分頃에는 불꽃이 噴出되는 것이 目擊되었다. 現場에 到着한 消防隊의 指揮者는 發火場所發見을 위해 屋內로 進入, 中央 1層의 階段을 通過 順次的으로 올라가 보았으나 5층까지 아무 異常도 發見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6層에 올라가니 煙氣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고, 한 층씩 더 올라가면서 연기의 濃度가 짙었으며 屋塔 2層의 「팬」室 北側의 外氣取入口, 그리고 兩側出入口에서 검은 연기가 噴出되고 있음을 目擊했다. 그 후 5分後 6層以上の 階段 階에 있는 吸氣口에서 火焰이 噴出하기 始作했다. 3層以上은 出入口의 鐵門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屋內의 狀況을 볼 수는 없었으나 2層의 모습은 出入口의 유리窓을 通過해서 確認할 수가 있었다.

(가) 發火原因과 延燒經路

이 火災는 빌딩을 垂直으로 貫通하고 있는 換氣用的 「닥트」 保溫材가 타 이것이 各層의 벽이나 천정에 붙은 것으로 2層과 6層의 天井 約 20m<sup>2</sup>, 3層과 4層의 天井 約 7m<sup>2</sup>, 12層의 天井 約 3m<sup>2</sup>를 불태웠고 5層以上の 階段天井 約 2m<sup>2</sup>을 태웠다. 延燒經路가 된 것은 空氣의 分岐通路로서, 이것을 감고 있는 물질에 불이 붙어 이것이 다시 천정에 옮겨 붙은 것이다. 또 「샤프트」용 「퓨즈」 點檢口로부터 壁으로 옮겨져, 可燃物이 놓여져 있는 2層과 6層이 가장 큰 被害를 받은 것이다.

문제는 「닥트」 保溫材를 固定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木材로 되어 있었다는 點이다.

(나) 消火作業


當日 宿直人員은 守衛 4명, 電氣擔當者 3명, 都合 7명이 있었는데 最初에 이 7명은 火災가 12層에서 發生한 것으로 誤認하고 階段을 뛰어 올라가 「팬」을 세웠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屋塔의 吸氣口에서 噴出되었기 때문에 屋上에 있는 2「인치」半 消火栓에서 「호스」 2개를 延長, 「팬」室의 外氣取入口를 通過 注水했다. 各層의 消火는 이들의 火災消息을 듣고 집으로부터 달려온 社員들 그리고 T工務店의 從業員들이 消防隊員과 協力하여 消火作業을 進행했다. 燃燒面이 2層以上の 「닥트」이기 때문에 北側階段에 面하는 各層의 換氣口에서 噴出하는 연기가 屋內에 積 차 있었고

더구나 退勤後이기 때문에 各房마다 可燃物이 채워져 있어서 消防隊의 活動은 더욱 困難했었다. 불길은 제일 險했던 6層의 불을 잡기 위해서는 사다리 自動車를 使用, 유리窓을 깨고 排煙을 하고 그리고 그 곳으로 進入 消火作業을 벌여야 했다.

(다) 問題點

이와 같이 한때는 아래 위에서 대 소동이 있었다. 이 火災는 「빌딩」을 垂直으로 貫通한 換氣用 通氣筒이 火災擴大의 主演을 맡은 격이 되었으나 그러나 더욱 問題되는 것은 保溫材가 可燃材였다는 事實이다.

耐火的으로 判別되어 보이는 「빌딩」도 防火上의 弱點을 內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特別히 이 火災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發火하던 火點發見이 늦어지고, 따라서



住宅火災  
의  
注意할處

1. 煙突(굴뚝)
  - 가. 破損되어 있지 않은가?
  - 나. 壁이나 지붕을 貫通하는 곳에 眼鏡石을 使用하고 있는가?
  - 다. 煙突의 先端은 지붕에서 60cm 이상 높게 하고 壁 등의 可燃物과 떨어져 있는가?
2. 난로
  - 가. 電氣난로는 15cm 이상, 「가스」 난로는 20cm 이상 壁 등의 可燃物과 떨어져 있는가?
3. 石油 「스토브」
  - 가. 난로에 異狀이 없는가?
  - 나. 可能的 限 짧게 使用하고 있는가?
  - 다. 조임쇠를 사용하고 있는가?
  - 라. 周圍 50cm 以內에 「커튼」·衣類 등의 可燃物을 接近시켜 놓지 않았는가? (方向性이 있는 것은 前方 1m).
  - 마. 點火시켜 놓은 채 給油나 移動을 시키고 있지 않은가?
4. 담뱃불
  - 가. 재떨이에 담뱃재를 터는가?
  - 나. 불을 끈 후 꺼진 불을 확인하는가?
5. 부엌 불(연탄불)